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尹慶老

韓末 興化學校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HONGHWA school at the Close of  
Chosun Dynasty

1998年 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李 正 勳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尹慶老

韓末 興化學校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HONGHWA school at the Close of  
Chosun Dynasty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李 正 勳

李正勳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8年 2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 目 次

I. 머리말 .....	2
II. 興化學校의 설립 .....	4
III. 興化學校의 운영 .....	17
IV. 興化學校의 教育內容 .....	25
V. 맺는말 .....	37
參考文獻 .....	39
Abstract .....	43

## I. 머리말

홍화학교는 1898년 10월에 설립되어 1911년까지 존속한 사립학교였다. 잘 알려진대로 개항 이후 민간에서 설립된 사립학교는 1883년 원산에서 관민합동으로 설립된 元山學舍를 제외하고는 1890년대까지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근대적인 관립학교도 1880년대에 정부의 주도로 부분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1894년 甲午更張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홍화학교는 민간에서 설립한 사립학교 가운데에서는 가장 초기의 것이었고, 특히 드물게 10년 넘게 유지되었다. 또 그 설립자는 이른바 乙巳條約의 강제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한 閔泳煥이었다.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20일자 의 논설 「興化學校」에서,

興化學校는 忠正公 閔泳煥氏의 創立한 바오 大韓 私立學校中에 最先起點이라……

고 소개한 것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따라서 홍화학교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으나, 대개 간단한 소개에 그치고 말았다. 최근에 와서야 홍화학교 전반과 量地教育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가 발표되어, 그 대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p>1)</sup> 그러나 그 설립시기를 비롯하여 운영,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상론하여 흥화학교가 한국근대사, 특히 교육사에서 위상을 가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

1)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郷土서울』 55, 1995.

## II. 興化學校의 설립

흥화학교의 설립에 관한 기록으로는 『皇城新聞』 1898년 10월 25일자  
에 실린 광고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다.

西署 新門內 興化門前 五宮洞契 上園洞(웃동산나무골)에서  
私立興化學校를 設立할터인디 課程은 英語와 算術과 地誌와  
歷史와 作文과 討論과 體操 等이오 入學試驗은 陰曆 十日로  
爲始하고 開校는 同月 十五日이오나 追後로도 願學호는 人  
이 有호면 許入하깃고 또 晝夜學을 設할터이오니 僉員은 本  
校에 來호야 試驗을 經호고 規則을 問호되 國漢文에 全혀  
不通호거나 保證人이 無호면 本校에서는 來學을 不許할터이  
니 以此輪悉호와 趁期來學호심을 望호

私立興化學校長 閔泳煥

教師 林炳龜

鄭 喬

南舜熙

이 광고를 보면 흥화학교는 주간과 야간과정으로 영어·산술·지지

· 역사 · 작문 · 토론 · 체조 등의 과목을 교수하는 중등정도의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국한문을 해득해야 입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교장은 閔泳煥, 교사는 林炳龜 · 鄭喬 · 南舜熙였고, 개교는 음력 9월 15일, 즉 10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흥화학교라는 교명은 보이지 않지만 이 광고보다 하루 일찍 10월 24일자 『皇城新聞』의 잡보 「私立學校」를 보면,

興北門前 上園洞에서 私立學校를 設하는디 發起人은 閔泳煥 · 林炳龜 · 韓宇 · 鄭喬 諸氏오 其所學하는 條例는 英語와 算術과 地誌와 歷史와 作文과 討論과 體操 等이라더라

고 흥화학교의 설립을 보도한 바 있었다. 이 기사에는 광고에는 빠진 韓宇가 발기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0월 29일에 개교하고자 한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연기되어, 음력 9월 22일 즉 양력 11월 5일에 이르러 가능하였다.<sup>2)</sup>

1898년 11월 5일자로 개교한 흥화학교는 교장 민영환의 이름으로 12월 22일자로 한성판윤 李采淵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청원서」는 흥화학교의 전반적 사항을 기록하고 학교의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sup>3)</sup>

2) 『皇城新聞』 1899년 10월 29일자 잡보 「義捐設校」.

3) 「興化學校文簿與報告書」라는 이름의 문서철은 흥화학교의 졸업생이며 교사로

## 請願書

本年 十一月 五日에 私立學校를 西署 餘慶坊 五宮洞契 上園洞에  
設호야 삼기로 茲에 稟請호오니 許可호심을 望호

但設校規는 左와 如호

### 一 校名

私立興化學校

### 一 規則

教育의 目的

普通科와 高等科를 教授호

學科의 科程

晝學과 夜學을 分課호

卒業年限은 普通科는 三年이오 高等科는 二個年으로 定호

### 普通科

第一年 英語 算術 地誌 歷史 作文 討論 體操

第二年 英語 算術 地誌 歷史 物理學 討論 體操

---

도 봉직한 吳聖根이 원본을 필사한 것으로, 현재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인 알마아타의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899년 12월부터 1904년 6월까지 흥화학교에서 학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第三年 英語 英文 數學 歷史 法學概要 行政學概

要 討論 體操

高等科

第一年 英語 英文 數學 地理 歷史 法學概要 行政學

概要 討論 體操

一 試驗

년에 二度 定期試驗을 行하며 每月에 月終試驗이 有함

但 定期試驗은 每年內와 二月 九月內로 行함

一 入學員年齡

十五歲 以上으로 三十歲 以下에 限함

一 入學員의 學力

普通科는 國漢文의 夙工이 有한 者로 試驗을 經한 後에 許入  
함

但 官公立小學校의 高等科를 卒業한 者는 此限에 不在함

高等科는 本科의 本普通科를 卒業한 者와 他學校中 適當한

學科를 卒業한 者를 許入함

一 休業

日曜日 節日 慶祝日 冬期放學 夏期放學

冬期放學은 自十二月 二十五日로 一月 二十日이오

夏期放學은 自七月 一日로 至八月三十一日이라 함

一 經費定額

每年 五千元

校費 書籍費 器械費 月給費

一 現任學員數

晝學 五十四人

夜學 九十二人

一 校務員列名

校長 一人

現任 閔泳煥

副校長 二人

現任 林炳恒 金信榮

校監 一人

現任 韓 宇

教師 三人

現任 林炳恒 南舜熙 鄭 喬

一 學校勸設人

閔泳煥 林炳恒 金信榮 韓 宇

光武 二年 十二月 二十二日

私立興化學校長 閔泳煥

漢城府 判尹 李采淵 閣下

이 「청원서」는 설립 초기 홍화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그 교육과정은 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뉘어 있고, 각기 주간과 야간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통과는 3년과정으로 1·2학년에 영어·산술·지리·역사·토론·체조를 공통으로 교수하고, 1학년에는 작문과 2학년에는 물리학을 추가하였다. 3학년에는 영어·영문·수학·역사·법학·행정학·토론·체조를 교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고등과에서는 보통과 3학년의 과목에 지리과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어교육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산술(수학)·역사·토론·체조가 공통된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고급학년에서는 법학과 행정학을 교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론과 체조를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일이다. 영어가 중시된 것과는 달리 설립 초기 홍화학교에서는 일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보통과의 학생들을 관공립소학교의 고등과 졸업생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로도 교육정도는 중등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년 소요예산은 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교비·서적비·기계비·월급비 등이 그 사용내역이었다. 월평균 417원 정도의 비용이 계산된 것이지만, 방학기간을 고려한다면 매월 500-600원이 소용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학교의 임원으로는 교장·부교장·교감·교사가 있었으며, 학교창설자로 민영환·임병항·김신영·한우가 지적되었다. 전직 군수인 김신영은 홍화학교 설립에 재정지원을 크게 하여 설립자로 언급되기까지 하였으며,<sup>4)</sup> 임병항은 임병구와 동일인으로 생각된다.<sup>5)</sup>

홍화학교의 「청원서」를 접수한 한성부에서는 “當報告于學部稟 事”라는 처리지시를 붙여 허가하였고, 홍화학교에서는 12월 25일자로 학부대신 閔丙奭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청원서」에는 한성부에 제출하였던 홍화학교 관련사항과 함께, 학교의 경비는 찬성원들의 보조금과 학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할 것을 명기하고, 아울러 각종 시험 결과를 보고하면 학부에서 필요한 시상품을 하사해 달라고 하였다. 학부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있었다.<sup>6)</sup> 홍화학교는 이후 각종 시험이 있게 되면 학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학부에서는 서책과 문방구를 시상품으로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의 사립학교들이 학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홍화학교의 설립이 이보다 이른 1895년중에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있어, 약간 혼란이 된다. 그러한 주장은 李萬珪의 『朝鮮教育史』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김세한의 『한서 남궁억 선생의 생애』에서도 역시 1895년 설립설을 내세웠다는 것이다.<sup>7)</sup> 이만규는 민영환이 1895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국하여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홍화학교를 세웠다는 것이나, 민영환이 귀국한 것은 1896년 4월이

4) 『皇城新聞』 1899년 10월 29일자 잡보 「義捐設校」.

5) 『帝國新聞』 1898년 10월 28일자 잡보에 소개된 교사는 林炳龜·鄭喬·南舜熙의 3인이었는데, 「청원서」에는 林炳恒·남순희·정교였다. 따라서 임병구와 임병항은 동일인이었고, 이후 임병항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6) 「興化學校文簿與報告書」.

7) 李萬珪, 『朝鮮教育史』 下(乙酉文化社, 1949), p.69. 김세한, 『한서 남궁억선생의 생애』(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1960), p.71.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pp.88-89.

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이에 비하여 김세한의 주장은 남궁억이 내부 토목국장으로서 재임하며 야간에 홍화학교에서 영문법과 한국사를 강의하였다는 것으로, 吳聖根의 일기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sup>8)</sup> 그러나 오성근의 일기에는 오성근이 1898년 음력 9월 17일(10월 30일)에 홍화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9)</sup> 따라서 홍화학교의 설립시기는 기억과 증언에 의존하여 주장된 1895년설은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sup>10)</sup> 실제로 홍화학교에서는 1898년 11월 5일을 설립기념일로 삼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으며,<sup>11)</sup> 또 관청에 보고하는 경우에도 설립일자를 1898년 11월 5일로 기록하였다.<sup>12)</sup>

홍화학교의 설립이유는 설립자로 알려진 閔泳煥이 1899년 1월 19일자에 실린 「조흔 의견」이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그윽히 생각하되 나라 되는 도가 학교를 이룩켜서 인지를 굴아치는 것만 궂음이 업는지라”라고 하면서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민영환은 교육이 국가발전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8) 김세한, 『한서 남궁억선생의 생애』, p.71.

9) 오성근의 『日記抄』는 1894년부터 쓰기 시작한 『學舍日記』를 초략한 것으로 현재 그 복사본이 국가보훈처 자료관리과에 수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가 일본 혹은 러시아에서 수집한 것으로 짐작된다.

10) 이미 金祥起, 『韓末 私立學校의 教育理念과 新教育救國運動』, 『清溪史學』 1, p.67의 주 14)에서 1898년 11월 5일이 홍화학교의 설립일일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11) 예컨대 『皇城新聞』 1907년 11월 7일자 잡보 「興校紀念概況」을 보면 11월 5일 제 9회 설립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p.4 ; 渡部學·阿部洋 편,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67(龍溪書舍, 1991) 수록. 1910년 10월 말의 현황을 보고한 이 문건에는 ‘明治 31년 11월 5일’을 설립일자로 기록하였다.

외국유학을 통하여 새로운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유학생의 파견이 어려운 현실에서 홍화학교를 설립하며, 특별히 영어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부교장의 한 사람이었던 林炳恒이 미국에 유학한 인물이었던 사실도 그러한 목적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sup>13)</sup> 그리고 민영환뿐 아니라 惠象局 醫士로 홍화학교의 교사직을 맡았던 한우 역시 『皇城新聞』에 ‘興學說’을 지어 보낸 바 있었는데, “國家에 開明進歩하는 것이 學校를 廣設하여 人材를 培養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홍화학교의 발전을 소개하였다.<sup>14)</sup> 『皇城新聞』도 1906년 8월 16일자 논설 「賀興化學校擴張」에서

……竊惟興化學校는 往在戊戌之歲(1898년)에 故忠正公閔泳煥氏의 所搆建者也라 蓋是時에 公自歐米列邦으로 閱覽而歸하여 我韓에 民知之未開와 教育之未振을 慨然與歎하고……

라고 하여, 외국를 다녀온 민영환이 민지의 미개와 교육의 부진을 한탄하여 홍화학교를 세웠다고 하였다. 민영환을 비롯한 홍화학교의 관계자

13) 方善柱, 「徐光範과 李範晉」,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探求堂, 1987), pp.442-443와 方善柱, 「金憲植과 3·1운동」, 『在美韓人の 獨立運動』(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89), pp.304-308. 임병항은 1895년 정부에 의하여 일본의 慶應義塾에 파견된 유학생이었으나, 1896년 2월 무단이탈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주미공사 徐光範의 도움으로 워싱턴 소재 하워드대학에 입학한 바 있었다. 이 때 임병항은 林炳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呂炳鉉·李厦榮·李範壽·安禎植·金憲植 등과 동행하였던 것이다.

14) 『皇城新聞』 1899년 1월 7일자 잡보 「學校寄書」.

들은 교육이 국가의 문명진보에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흥화학교의 설립이 이해되는 것이다.

흥화학교는 설립 직후부터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당시 흥화학교와 같은 교과목을 교수하는 학교는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있었을 뿐이었고, 더욱이 야간과정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았나 짐작된다. 1899년 12월만 해도 학생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2월 중순에는 晝學 47명, 夜學 79명으로 총 126명이 보고되었는데,<sup>15)</sup> 12월 22일자 한성부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주학 54인, 야학 92인으로 146명으로 알려졌고, 12월 말에는 주학 60여명, 야학 90여명으로 150여명이 소개되었다.<sup>16)</sup> 모두 야학의 학생수가 주학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생수가 증가하자 흥화학교의 재정은 부족하였고, 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넓은 교사로의 이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皇城新聞』 1899년 4월 3일자 잡보 「校費請助」를 보면,

昨日 興化學校에서 事務委員 閔泳瓊·尹德榮·徐相助·南奎熙·李範昌·金珏鉉·李應翼·李載現·羅壽淵·丁大有·李啓弼·洪肯燮·李舜夏·池錫永·南宮櫨·金奎熙·金碩桓·尹相郁·韓宇 諸氏가 校務를 會議할 시 現存校舍가 太狹호야 擴張할 方策을 講究호는디 移校費는 有志君子에게 補助金을 請求호라 호

15) 『皇城新聞』 1898년 12월 15일자 잡보 「試才施賞」.

16) 『皇城新聞』 1898년 12월 27일자 잡보 「學業自旺」.

고 參席흔 委員들이 優數흔 金額을 먼저 補助흐얏다더라

고 사회에서 의연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金宗漢이 50元을, 閔泳駿(閔泳徽)·朴箕陽이 각 40원을 찬성금으로 내놓았고,<sup>17)</sup> 이어 교장 민영환이 200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학교 임원과 사무위원들이 총 395원 50전을 의연하였다.<sup>18)</sup> 1899년 8월 흥화학교는 中署 壽進洞으로 옮기고 학과를 확대하고 교사를 충원하였다.<sup>19)</sup>

또한 흥화학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 지교가 설립되었던 사실은 주목된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경북지방에서 2개의 지교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1899년 6월경에 대구에 崔處圭가 주도하여 私立興化學校支校가 설립된 사실은 『皇城新聞』 1899년 12월 14일자 잡보 「大邱學校」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大邱人 崔處圭氏가 新進開導上에 注意흐야 今年 六月頃에 大邱府에 私立興化學校支校를 設흐고 崔氏가 副校長이 되야 葉三千餘兩을 出義흐야 前將校廳을 修理흐야 校舍로 使用흐고 學部에서는 補助金 一百五十二元을 爲先劃給흐얏는디 教師는 尹台炳氏오 晝夜學徒가 合四十餘人이니 其教課는 英語·算術·地誌·歷史더라

17) 『皇城新聞』 1899년 5월 9일자 잡보 「贊成學金」.

18) 『皇城新聞』 1899년 8월 25·26일자 광고.

19) 『皇城新聞』 1899년 8월 28일자 광고.

홍화학교 대구지교는 최처규가 엽전 3,000양을 출자하고 학부에서도 보조금 152원을 수령하여 운영하였는데, 주학과 야학을 갖추고 영어·산술·지지·역사 등을 교수하였다. 대체로 서울의 홍화학교를 모범으로 삼아 운영하였을 것이다.

대구와 함께 안동에서도 홍화학교지교가 같은 해 10월에 설립되었다. 그 설립광고가 『皇城新聞』 1899년 9월 25일자에 게재되어 있다.

安東郡 南門內에 興化學校支校를 設호고 十月 十九日(陰 九月十五日) 開學홀터이오니 入學志願人은 開學日前에 本校에 來호야 請願試驗호시오

安東郡興化學校支校 副校長 柳 琬

敎員 李運永 柳時萬 李麟羲 金一河

안동의 홍화학교지교는 부교장 이외에 4명의 교사가 있어, 대구의 교사 1명보다도 그 규모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지교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 그 운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장이 공석이고 부교장만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교장은 서울 본교의 교장이 명예직으로 겸임하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부의 홍화학교는 1910년 10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며, 교사 1

인에 재학생은 11명으로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sup>20)</sup> 또 부교장 崔處圭는 1901년 5월 학부에서 포상을 받는데,

大邱 居하는 崔處圭가 興化學校를 創設하고 校費를 自擔하여 教育 數年에 漸有成就하니 是는 教育上에 誠心을 可見이라 特別 이 褒狀을 付與하는 事<sup>21)</sup>

라고 이 이유가 설명되고 있었다. 흥화학교의 운영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안동 흥화학교지교의 부교장 柳琬은 무과출신으로 宣傳官과 安東營將을 역임한 인물이었다.<sup>22)</sup>

---

20)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p.97.

21) 『舊韓國官報』 1901년 5월 9일자 '學事'.

22) 宋志香 편, 『安東郷土誌』 下(大星文化社, 1983), p.434.

### III. 興化學校의 운영

홍화학교의 설립자금은 전 군수 金信榮이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생각된다.

興化學校는 前郡守 金信榮氏가 出義捐金하여 設立하였더니 金  
氏가 前에도 治民하기에 名譽가 顯著하더니 今에 또 如此한 義務  
를 行하니 極히 致賀할 事이더라.....23)

김신영의 출자로 홍화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이었고, 또 『帝國新聞』  
1899년 10월 28일자 잡보에는 홍화학교의 “지물 더기는 김신영씨오”라  
고 하였다. 그러나 김신영 개인의 출자만으로 학교가 설립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皇城新聞』 1899년 3월 7일자 잡보 「光興學校」라는 기사  
가운데, “昨冬에 有志諸公이 出義捐金하여 興化學校를 私立하였는디”  
라고 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24) 유지들이 자금을 모아 홍화학교를 설  
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김신영이 가장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홍화학교가 1898년 12월 한성부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1년경비를

23) 『皇城新聞』 1898년 10월 29일자 잡보 「義捐設校」.

24) 이 점은 金祥起, 「韓末 私立學校의 教育理念과 新教育救國運動」, p.6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5,000원으로 상정하고 있었고, 그 사용처는 校費·서적비·기계비·월급비였다. 그리고 학부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경비는 찬성원들의 보조금과 학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할 것을 명기한 바 있다. 후술하겠지만 홍화학교는 1906년 9월 이전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찬성원들이 사무위원이라는 명의로 홍화학교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1899년 4월에 있는 보조금의 모집에서 드러난다. 즉 사무위원으로 거명된 인물들은 이미 보았지만 閔泳瓚·尹德榮·徐相勛·南奎熙·李範昌·金珏鉉·李應翼·李載現·羅壽淵·丁大有·李啓弼·洪肯燮·李舜夏·池錫永·南宮櫛·金奎熙·金碩桓·尹相郁·韓宇 등으로 그 대개가 전현직 관리들이었다.<sup>25)</sup> 설립자이며 교장인 민영환이 민씨정권의 중추에 있었던 점에 미루어, 민영환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진동으로 교사를 이전한 홍화학교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후 민영환의 순국에 이르는 1905년 말까지 홍화학교의 재정부족이 논의된 신문기사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한 이후, 홍화학교의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그간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민영환이 부담을 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sup>26)</sup>

25) 『皇城新聞』 1899년 4월 3일자 잡보 「校費請助」.

26) 『皇城新聞』 1906년 8월 16일자 논설 「賀興化學校擴張」에서는 “募聚青年之英才하고 一切校費를 躬自擔富하니”라고 하여, 민영환이 비용을 전담한 것처럼

민영환의 순국으로 홍화학교가 재정난에 봉착하여 폐교의 위기에 처하자,27) 당시 사회에서는 홍화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壽洞 興化學校가 一自 閔忠正公 卒逝以後로 財政이 困難하야 維持沒策이라 함은 本紙上에 一編 論述하얏더니 其內容을 詳聞헌 則 閔輔國 泳徽씨가 該校의 困難함을 聞히고 昨冬에 紙幣 一百元을 補助하고 且該校 贊務長됨을 許諾하얏다 하고

皇上陛下의 帑서 該校의 窘絀함을 宸念하샤 內帑中으로 每朔 紙貨 六十元式 撥下하옵실 處分을 하하옵섯는디 萬若 此로써 經費가 不足할 境遇에는 또헌 閔輔國이 助力하기로 約定하얏다니 閔輔國의 有志함을 世皆 欽頌하더라28)

즉 1905년 겨울에 재력가로 알려져 있던 전직 재상 閔泳徽가 100원을 기부하고 홍화학교의 찬무장에 취임하였으며, 황제도 매월 60원씩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황실에서는 홍화학교가 황제의 측근으로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한 민

---

서술하고 있었다.

27) 『皇城新聞』 1906년 2월 16일자 잡보 「校長有人」에 의하면, “興化學校 校長 閔泳煥氏가 卒逝헌 後에 該校의 校長이 主官이 無하야 廢止할 境에 至함”이라고 하였다.

28) 『皇城新聞』 1906년 3월 3일자 잡보 「有志興學」.

영한이 경영하던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지원을 하였을 것이다. 이어 천도교주인 孫秉熙가 30환을 보조하였으며,<sup>29)</sup> 고관과 재산가를 중심으로 찬무원들을 선임하였다. 찬무원장에는 민영희가, 찬무원으로는 韓圭高·趙東潤·劉臣赫·崔文植·白完懋·趙鎮泰·趙秉澤 등이 참여하였다. 또 이 때 임원진이 정비되어 찬성장에 閔丙奭, 평의원장에 李商在 평의원 閔健植·玄暎運·李忠求·李相天 등의 선임도 있었다. 학교의 사무는 掌務員 崔文植, 사무원 權鴻周·李重華가 선임되었다.<sup>30)</sup>

1906년 3월 24일에 개최된 흥화학교의 제 1 회 평의원회에서는 찬성금 모집과 학원 월사금수납문제, 그리고 교사확장방침을 논의하였다.<sup>31)</sup>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4월에는 '私立興化學校贊成金募集趣旨書'가 사회유지들에게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sup>32)</sup> 흥화학교에서는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교사확장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사확장은 이후 다른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1910년 10월 현재 흥화학교의 교지는 100평, 교사는 45명의 규모였다.<sup>33)</sup>

아무튼 흥화학교의 재정은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20일자 논설 「興化學校」에서,

29) 『皇城新聞』 1906년 3월 17일자 잡보 「教主捐助一柬」.

30)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擴張」.

31)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大興」.

32) 『皇城新聞』 1906년 4월 7일자 잡보 「興校趣旨」.

33)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p.4.

……皇上陛下의 음서……每月 皇室費중으로 特히 恩給이 有하시  
며 또한 學部의 補助와 大官及紳士等의 義捐이 有해야 維持……

라고 언급한대로 황실비와 학부의 보조금, 그리고 의연금으로 충당되었  
다. 뿐만 아니라 홍화학교에서는 1906년 9월부터 적은 액수이지만 수업  
료도 책정하였다. 즉 “今월부터 月謝金을 磨鍊해야 每學員에게 新貨 二  
十五錢(錢)式 依例收入한다”는 신문기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100명 이상이 재학하고 있었으므로 방학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수업료 수입은 250원에서 300원에 이르렀으리라 짐작된다.

찬성금 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평북관찰사  
申泰休 같은 이는 관내 각군에 찬성금취지서를 보내 의연금을 모금하  
여 홍화학교로 송부하였다. 즉 『皇城新聞』 1907년 1월 22일자 광고에  
의하면 그 액수는 총 1,646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신태휴는 1906년 경  
북관찰사에 재임하면서 ‘興學訓令’을 관하 각군에 지시하여 교육진흥을  
피한 바 있었고,<sup>35)</sup> 평북관찰사로 전임된 이후에도 학교설립을 장려하였  
던 관리였다.<sup>36)</sup> 따라서 홍화학교의 재정지원에도 진력하였던 것으로 짐  
작된다. 또 평의원 鄭象煥은 30원 정도의 서적을 기부하여 성적우수자  
에게 시상하도록 하였다.<sup>37)</sup>

이러한 사회의 지원에 따라 홍화학교의 재정은 설립자의 순국 이후

34) 『萬歲報』 1906년 9월 12일자 잡보

35) 『皇城新聞』 1906년 3월 19일자 잡보 「興學訓令」.

36)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18일자 잡보 「平北民願」.

37)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5일자 잡보

에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907년부터 1908년에는 소액이지만 학부의 보조금도 수령하였고,<sup>38)</sup> 坊會와 洞民의 기부도 받고 있었다.<sup>39)</sup> 그러나 1909년 이후에는 재정부족이 계속되었던 것 같다. 『大韓民報』 1910년 2월 2일자 교육계 「依例憑藉」라는 기사를 보면,

壽洞 興化學校는 故閔忠正公이 設立한 것인데 財政이 窘乏하여 廢止할 境에 至한 故로 閔氏諸族이 維持할 方針을 相議하고 閔泳徽氏에게 多少 補助를 請求하였더니 閔氏가 徽文義塾의 經費自擔을 憑藉하고 不應하였더라

고 하여 학교의 유지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씨들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영휘에게 보조를 요청하였으나, 민영휘는 徽文義塾의 경영을 내세워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흥화학교 교감 金碩桓은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지만,<sup>40)</sup> 민씨 친족들이 학교유지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부족한 재정을 교장 閔丙奭과 찬무장 閔泳瓚 두 사람이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sup>41)</sup> 찬무장인 민영찬은 민영환의 實弟이기도 하였다.

38) 崔起榮, 「韓末 서울 소재 私立學校의 教育규모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報』 70, 1993, p.59.

39) 崔起榮, 「韓末 서울 소재 私立學校의 教育규모에 관한 一考察」, p.56.

40) 『皇城新聞』 1910년 2월 15일자 잡보 「興監辨論」.

41) 『皇城新聞』 1910년 3월 12일자 잡보 「兩氏擔費」.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1909년 이후 홍화학교의 재정이 악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정책과 무관하지 않았다. 일제는 친일정권을 통하여 1908년 8월 私立學校令을 반포하게 하여 사립학교의 인가제를 실시하였고, 또 1909년 2월에는 사립학교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기부금의 모금을 제한하는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을 만들어 사립학교의 재원을 봉쇄하고자 하였다.<sup>42)</sup> 1910년을 전후하여 홍화학교는 기부금과 수업료가 주된 수입원이었는데,<sup>43)</sup> 기부금의 모금이 규제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말일 현재 홍화학교는 1년경비가 2,120원으로 교사 15명에 학생은 겨우 59명뿐이었다.<sup>44)</sup> 매월 177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었고, 방학을 계산하더라도 월 200원이 조금 넘는 액수로 학교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정도의 경비를 사용하는 사립학교는 많지 않았다. 당시 종교학교를 제외한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1년경비의 평균이 1,800원이었고, 소수의 대규모 학교들을 제외한다면 1년경비는 훨씬 적은 액수였다.<sup>45)</sup> 이러한 재정 조건은 1910년 3월 이후 고관으로 재산가였던 민병석과 민영찬이 홍화학교의 재정을 담당한 이후에 호조된 상황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42) 이 문제에 관해서는 柳漢喆, 「韓末 私立學校令 以後 日帝의 私學 彈壓과 그 特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을 참고할 것.

43)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p.4.

44)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p.4.

45) 崔起榮, 「韓末 서울 소재 私立學校의 教育규모에 관한 一考察」, pp46-49.

그러나 1898년 설립시에 1년경비를 5,000원으로 책정하고 150명을 전후한 학생들이 재학하던 홍화학교는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강점당한 후 일제에 의해 사립학교들이 도별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1911년에 폐교 되었다.<sup>46)</sup>

---

46) 조선총독부 內務部 學務局, 『朝鮮人教育私立學校統計要覽』,(1913).

## IV. 興化學校의 教育內容

홍화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먼저 교수과목을 검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898년 12월 홍화학교에서 한성부에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목이 교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普通科

第一年 英語 算術 地誌 歷史 作文 討論 體操

第二年 英語 算術 地誌 歷史 物理學 討論 體操

第三年 英語 英文 數學 歷史 法學概要 行政學概要  
討論 體操

### 高等科

第一年 英語 英文 數學 地理 歷史 法學概要 行政  
學概要 討論 體操

홍화학교는 3년과정의 보통과와 2년과정의 고등과를 설치하고, 다시 주학과 야학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보통과에서는 영어와 산술(수학)을 비롯하여 지리·역사·토론·체조를 3년동안 가르쳤고, 각 학년마다

작문·물리학, 법학개요·행정학개요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고등과에서는 보통과 3학년 과목에 지리와 역사를 추가하였다. 고등과 2학년의 교과목은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인 교과목은 알 수 없지만 1학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영어와 산술(수학)·역사·토론·체조를 매우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보통과와 고등과 모두에 이 과목들은 필수로 포함되어 있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은 두 차례에 걸쳐 외국여행을 하고 재외공사를 역임한 민영환이 설립자였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이해된다. 아울러 창립시 부교장으로 선임된 林炳恒은 국비유학생으로 1895년 일본 慶應義塾에 파견되었다가, 이탈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주미공사 徐光範의 지원으로 워싱턴 소재의 흑인대학인 하워드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영국의 하레이대학에서 수학한 林炳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영국 유학을 할 수 있던 것은 서광범의 주선으로 유럽주재공사이며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기념식에 참석한 민영환을 통하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47)</sup> 한편 민영환은 홍화학교를 설립하기에 앞서 임병항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구하기 어렵던 때에 구미 유학생 출신의 임병항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산술은 南舜熙가 가르쳤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는 1900년 8월에 황성신문사에서 『精選算學』을 발간한 바 있다.<sup>48)</sup> 토론은 1896년

47) 方善柱, 「徐光範과 李範晉」,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pp.442-443.

48) 이에 관해서는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pp.116-118 참조.

培材學堂에서 徐載弼이 協成會를 개최한 이래 1897년 獨立協會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중시되었던 것 같다. 체조는 오늘 날의 체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역사나 지리는 만국과 본국으로 나누어 가르쳤을 것이고, 국제사회를 이해하면서 한국의 사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홍화학교는 1899년부터 입학시험으로 독서와 작문을 부과하였으며, 17세 이상으로 연령도 제한하였다.<sup>49)</sup> 아울러 1900년 4월에 量地速成科를 병설하였고,<sup>50)</sup> 80여명의 인원으로 4월 16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sup>51)</sup> 이렇듯 갑자기 양지속성과를 신설한데에는 당시 일제가 森林·家屋·土地를 측량하고 있었는데 이에 우리 국민이 측량을 인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sup>52)</sup> 이 때의 교수과목은 영어·영문·산술·지지·역사·물리학·圖畫學이었다. 아마도 1900년부터는 尋常科·특별과·양지과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900년 5월 현재 140여명이 재학하고 있었다.<sup>53)</sup> 심상과는 보통과를, 특별과는 고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01년과 1902년의 학생모집광고를 보면 대체로 교수과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4)</sup> 즉 1898년 설립 이후 1904년까지는 설립시에 제출된 「청원서」에 언급된 교과목이 교수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1905년부터는 영어와 일본어 과정으로 나누어 입학시험을 실

49) 『皇城新聞』 1899년 8월 28일자 광고.

50) 『皇城新聞』 1900년 4월 2일자 잡보 「衙校成約」 및 4월 3일자 광고.

51) 『皇城新聞』 1900년 4월 19일자 잡보 「興校增科」.

52) 姜秉植,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研究』, (民族文化社, 1994), p.24.

53) 『皇城新聞』 1900년 5월 31일자 잡보 「興校月試」.

54) 『皇城新聞』 1901년 3월 9일자 및 1902년 3월 13일자 광고.

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 과정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이렇듯 외국어 과정이 신설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무관하지 않았다. 즉 국내에는 일제의 측량사업에 견줄만한 지식을 갖춘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크럼 Raymond Edward Krumm : 巨廉(美), 內田儀平治(日식))교사를 초빙하게 되었는데, 이에 통역의 필요로 외국어가 강조되었던 것이다.<sup>55)</sup>

시험은 국한문·독서·작문이었으며, 14세 이상을 입학시켰다. 또 1906년 3월부터는 법학·경제 등을 추가하여 고등보통과정을 교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06년 9월 학기에는 일시 법학과 경제를 정지시키기도 하였다.<sup>56)</sup> 다음의 < 표 1 >은 『私立興化學校規則』에 포함된 교과목을 정리한 것이다.<sup>57)</sup>

---

55) 姜秉植,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研究』, (民族文化社, 1994), p.13.

56) 『萬歲報』 1906년 9월 12일자 잡보 『興校開學』.

57) 『私立興化學校規則』은 李鎮昊, 『增補 大韓帝國 地籍 및 測量史』(土地, 1991), pp.272-278에 수록되어 있다.

< 표 1 > 『私立興化學校規則』(1907)의 교과목

학 과 목	제 1 학년				제 2 학년				제 3 학년			
	제 1학기	시 수	제 2학기	시 수	제 1학기	시 수	제 2학기	시 수	제 1학기	시 수	제 2학기	시 수
문 학	맹자강의 국한문작	4	맹자강의 서찰법	4	논어강의 한문작	3	논어강의 한문작	3	대학강의 한문작	3	중용강의 한문작	3
산 술 (수학)	四則雜題	4	分數四則	4	諸等數比 例開平方	4	대 수	4	대 수	5	평면측량	5
지 지	본국	3	士民必知	3	만국	3	만국	3				
역 사	본국	3	본국	3	만국	3	만국	3				
어 학	초학독본 회 화	7	초학독본 短語작문	7	독 본· 초학문법	7	독본·문 법·작문	7	고등독본 ·문법	6	고등독본 ·문법	6
이 학	신체학	3	생리학	3	물리학	3	물리학	3	화학	3	화학	3
박물학					식물학	3	동물학	3				
법 제									법학통론	3	법학통론	3
경 제									경제통론	3	재정학	3
국가학									국가학	3		
철 학											철학	3

『私立興化學校規則』은 1907년 중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58)</sup> 이 시기 홍화학교의 교과목을 보면 1학년에서는 문학·산술·지지·역사·어학·이학을 주당 24시간 교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2학년에는 박물학이 추가되고, 3학년에는 문학·수학·어학·이학·법제·경제·국가학·철학이 교수되었다. 2·3학년은 주당 26시간을 교수하였다. 어학은 1·2학년의 경우 주당 7시간으로, 전체 시간의 30%에 가까웠고, 3학년은 23%였다. 또 산술(수학)은 1·2학년에서 4시간, 3학년에서 5시간씩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3학년에는 법제·경제·국가학·철학을 포함시켰다.<sup>59)</sup> 이같은 교과목과 시간배정으로 미루어 홍화학교에서는 어학교육을 가장 중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특별과는 폐지되었는데, 그것은 고등보통(중등) 과정을 교수하면서 취해진 조치였던 것 같다.

홍화학교의 교과목은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1905년 이후 실용성 있는 교육의 필요에 의해 영어·일어 교육이 중시되었다. 다른 교과목들은 근대서양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고, 역사와 지리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통에 대한 관심도 뚜렷하였다. 고급학년으로 올라가면 법학과 경제학, 그리고 국가학 등 사회과학과 관련된 과목도 있었다. 체조는 현직 장교가 직접 가르쳤으므로, 兵式體操였을 것이다.<sup>60)</sup> 또 토론회는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었는데 주로 학술적 문제를 다

58) 그것은 『私立興化學校規則』에 민충정공추도회가 언급되어 있어 1906년 11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諸樣式 가운데 연호를 '光武'로 하고 있으므로 1907년 초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59)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p.99에 의하면 철학을 지우고 붓글씨로 簿記로 고쳐 놓았다고 한다.

루었고, 이 기회에 학생들은 웅변을 배우기도 하였다.<sup>61)</sup> 또 운동회는 동소문 밖 성북동에 소재한 민영환의 별장이었던 飲碧亭에서 가지곤 하였다.<sup>62)</sup>

홍화학교의 「任員處務規則」에 의하면 교장·교감·掌財員이 각 1명, 사무원 2명, 총교사 1명, 평의장 및 평의원 약간, 찬성원장 및 찬성원 약간을 둔다고 하였다.<sup>63)</sup> 이는 1906·7년 경의 임원조직이고 설립 초기에는 교장과 부교장·교감·교사로 구성되었고, 이후 사무위원(찬성원) 등이 있었음을 보았다.

교장직은 설립시기부터 1905년 말 순국할 때까지 閔泳煥이 맡고 있었으며, 이후 1906년 2월에 일시 陸軍副將 趙東潤이 교장에 취임하였으나,<sup>64)</sup> 그 해 3월 임원진을 개편하면서 林炳恒이 교장에 취임하였다.<sup>65)</sup> 그렇지만 임병항도 1년 남짓 교장직에 있었으며, 1907년에는 교감 김석환이 교장대판으로 사무를 처리하다가 1907년 9월에 홍화학교 찬성원 劉臣熾이 교장직을 인계하였던 것이다.<sup>66)</sup> 이후 유신혁이 교장으로 있었으나, 1910년 10월 현재 閔丙奭이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sup>67)</sup>

부교장은 설립 초기부터 임병항과 김신영이 맡았었는데, 1906년 3월

60) 『皇城新聞』 1906년 5월 21일자 잡보 「興校體操」.

61) 『朝鮮日報』 1939년 6월 23일자 「黎明期回想錄 7;金昶濟氏에게 雄辯發達史를 묻는다」.

62) 『皇城新聞』 1906년 4월 23일자 잡보 「興校春色」, 1907년 4월 22일자 잡보 「臨亭思主」, 5월 2일자 잡보 「興校運動」.

63)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pp.107-108.

64) 『皇城新聞』 1906년 2월 16일자 잡보 「校長有人」.

65)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大興」.

66) 『皇城新聞』 1907년 9월 20일자 잡보 「校長薦定」.

67)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p.4.

白象圭가 부교장 겸 총교사를 맡은 적이 있다.<sup>68)</sup> 그러나 1907년 이후에는 없어진 것 같다. 교감은 韓宇·임병항·김석환 등이 재임하였으며, 교사로 언급된 인물은 설립 초기에 임병항·정교·남순희, 1900년에 呂炳鉉·李厦榮,<sup>69)</sup> 吳聖根·李重華가 있다.<sup>70)</sup> 여병현과 이하영은 바로 임병항과 함께 경응의숙에서 수학하다가 미국과 영국에서 수학한 바 있던 인물들이고, 오성근과 이중화는 흥화학교의 졸업생들이었다. 1906년에는 백상규·이중화·박윤영·김준봉·羅璿·崔寧軾·徐相鸞·金相範·張志淵,<sup>71)</sup> 金教益·朴慶運,<sup>72)</sup> 金奎植,<sup>73)</sup> 鄭炫,<sup>74)</sup> 1907년에 劉秉苾·劉世煥 등이 교사로 활동하였다.<sup>75)</sup> 그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 추천되었지만 근무한 것 같지는 않다.<sup>76)</sup>

白象圭는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sup>77)</sup> 金奎植은 언더우드 목사의 救世學堂 출신으로 미국 로녹대학의 졸업생이었다.<sup>78)</sup> 羅璿은 관립일어학교와 일본 明治大學을 마쳤으며 흥화학교의 교사를 그만두고 법관양성소의 교관으로 활동하였고,<sup>79)</sup> 崔寧植은 早稻田大學을

68)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大興」.

69) 『皇城新聞』 1900년 4월 3일자 광고.

70) 「興化學校文簿與報告書」.

71)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擴張」.

72) 『皇城新聞』 1906년 7월 5일자 잡보 「興校放學」.

73) 『皇城新聞』 1906년 11월 6일자 잡보 「金氏熱心」.

74) 『皇城新聞』 1906년 5월 21일자 잡보 「興校體操」.

75) 『皇城新聞』 1907년 7월 13일자 잡보 「興校進就」.

76) 흥화학교의 교사 및 관계인사는 리진호, 「私立興化學敎와 量地敎育」, pp.100-104에 표로 정리하고 있다.

77)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14일자 잡보 「興校益興」.

78) 李庭植, 『金奎植의 生涯』(新丘文化社, 1974) 참조.

79) 『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1972), p.926.

마친 인물이었다.<sup>80)</sup> 1905년 이후 홍화학교에 영어과와 일본어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문교원이 초빙되었던 것이다. 鄭炫·金教益·朴慶運은 현역 군인으로 각기 正尉·參尉·正校로 체조교사였다.<sup>81)</sup> 이학교사였던 劉秉苾은 의학교를 졸업하고 군의관과 의학교 교관을 역임한 것 같고,<sup>82)</sup> 劉世煥은 관립일어학교를 거쳐 동경약학교와 동경제국대학 의과대학을 選科로 졸업하고 의학교 교관과 육군 1등약제관으로 근무하였다.<sup>83)</sup> 김준봉은 수학서적을 번역한 인물로 보인다.<sup>84)</sup> 전체적으로 홍화학교의 교사진은 당시 다른 사립학교들에 비하여 우수하였다고 생각된다. 일찍부터 구미유학생에게 영어를 교수케 하였고, 또 외국유학생이 적지 않은 실력 있는 인물들이 교사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병현과 김규식은 영어를 가르쳤겠지만, 기독교 신자들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홍화학교의 찬성원·찬무원·평의원으로 관여한 인사들은 전현직 교관이거나 재산가 또는 명망가들이었으며, 민영환을 비롯한 학교 임원들과의 교분이나 민씨 가문과 관련으로 참여하였던 것 같다.

초기의 교육은 다른 사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발전과 문명화를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교수된 교과목들도 서양의 근대학문을 수용하여 문명개화의 기틀을 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 崔起榮,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一潮閣, 1991), p.41.

81) 『皇城新聞』 1906년 5월 21일자 잡보 「興校體操」.

8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p.640에는 劉秉秘로 나오는데, 劉秉苾과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83) 『大韓帝國官員履歷書』, p.640.

84) 『萬歲報』 1906년 8월 14일자 잡보 「數學將刊」에는 홍화학교 교사 金鳳俊으로 언급되는데, 김준봉의 오식이라고 생각된다.

영어교육을 강조하였던 점에서도 그렇다. 설립자들이 교육을 국가의 급무로 이해하고 있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1906년 11월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에 반대하여 교장 민영환이 자결한 이후, 홍화학교의 교육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 방법은 국민계몽을 전제로 한 실력양성론이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특히 홍화학교는 매년 11월 30일 민영환의 추도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국권회복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1906년의 경우에는 추도가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天地至剛至正氣가 閔忠正公의 一刀로다 피가 흘너 더가 되니  
 大韓帝國 光榮이라 居諸光陰 빛비오니 殉節호신 今日이라 全局  
 同胞 二千萬이 一般追悼호려니와 數間 基礎 우리 學校 遺澤尙新  
 호도다 奮發호스 學徒더라 丁寧 遺書 이질손가 忠愛 目的 본을  
 바다 獨立精神 기를세라 年年此日 이 노리를 紀念 삼아 호여보  
 세<sup>85)</sup>

민영환의 순국과 忠愛를 본받아 독립정신을 기르자는 내용이었다. 또 홍화학교의 교모는 청색선을 두르고 血竹을 화판에 놓았는데, 청색은 민영환의 血脈에 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6)</sup> 그리고 교장대판 교감 김석환이 학생들에게,

85) 『皇城新聞』 1906년 12월 1일자 잡보 「興校追悼概況」.

86)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2일자 잡보 「興校帽製」.

一切社會의 團體는 一致함이 必要할 뿐 不啻라 現今 國勢民情  
이 若是岌業한디 結心職力해야 亟進文明에 恢復國權하라면 爲先  
斷髮하는 거시 第一急務라……

고 연설하자, 70여명이 단발하였다고 하였다.<sup>87)</sup> 문명개화와 함께 국권 회복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흥화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또 어떠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민영환이 설립자이며 교장이었던만큼 반일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민영환의 용인묘지를 학생들 전체가 참배하기도 하고,<sup>88)</sup> 민영환의 별장에서 운동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1910년 10월 현재 흥화학교는 15명의 교사에 5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sup>89)</sup> 고등정도를 교수하던 흥화학교의 학생수는 같은 정도의 학교 재학생 평균 200명보다 매우 적은 것이었고, 전체 사립학교 재학생 평균 123명보다도 적었다.<sup>90)</sup> 다만 교사의 수는 적은 편이 아니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명이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의 학생수가 150명 전후였던 흥화학교는 1906년 3월경까지 그 숫자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sup>91)</sup> 이후 감소해 나갔던 것 같다. 1907년 7월의 경우 학생이

87) 『皇城新聞』 1907년 4월 12일자 잡보 「興校近況」.

88) 『皇城新聞』 1906년 12월 2일자 잡보 「興校追悼後聞」.

89)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p.4.

90) 崔起榮, 「韓末 서울 소재 私立學校의 教育규모에 관한 一考察」, p.44.

100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sup>92)</sup> 학생수가 약간씩 감소하여 결국 1910년에 이르면 60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것은 1906년 이후 설립되는 사립학교가 많아지고, 고등정도의 교육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학교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1905년에 養正義塾과 普成專門學校가, 1908년에는 大東專門學校가 설립되었다. 또 1905년 이후 普成中學校와 徽文義塾 등 규모가 큰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홍화학교의 졸업생 또는 수학생으로는 모교의 교사로 재임한 바 있던 오성근·이중화를 비롯하여, 呂運亨(독립운동가),<sup>93)</sup> 金昶濟(교육자),<sup>94)</sup> 朴勝彬(보성전문학교 교장)·尹阜炳(동일은행장)·黃義性(대한매일신보사 기자),<sup>95)</sup> 鄭求昌(변호사)·兪萬兼(일제시 도지사)<sup>96)</sup> 등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또 홍화학교 측량과 졸업생 金奎元 같은 이는 목포항에 사무실을 내고 빈민에게는 무료로 측량과 제도를 해주고, 학생을 모집하여 측량술을 교수한다고 하여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sup>97)</sup>

91)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大興」에는 학생수가 백 수십명으로 나오고 있다.

92) 『皇城新聞』 1907년 7월 13일자 잡보 「興校進就」.

93) 呂運亨, 「自敘傳」, 『三千里』 1932년 9월호;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편, 『夢陽呂運亨全集』 1(한울, 1991), p.26.

94) 『皇城新聞』 1900년 7월 13일자 잡보 「興校放學」.

95) 「興化學校文簿與報告書」.

96)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17일자 잡보 「興校試驗」.

97)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13일자 잡보 「金氏有志」.

## V. 맺는말

한말 한국인이 설립한 사립학교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길었던 홍화학교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홍화학교는 1898년 11월 5일 민영환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민영환은 국가의 개명진보가 교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에 중등정도의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었다. 처음에는 3년과정의 보통과와 2년과정의 고등과가 주학과 야학으로 설치되었고, 영어와 산술(수학)을 비롯하여 지지·역사·토론·체조를 공통과목으로 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보수적인 경북지방의 대구와 안동에 홍화학교지교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홍화학교는 1900년에 量地速成科를 설치하며 심상과·특별과·양지과로 분류되었고, 1905년부터는 영어와 일본어 과정이 설치되었다. 1906년 이후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의 설립에는 전 군수 金信榮이 크게 출자하였으나, 이후 민영환이 재정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905년 11월 민영환이 순국하기 이전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재정난으로 황제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서 지원하였다. 수업료도 1906년 9월부터 받았으며, 학부와 坊會의 기부도 있었다. 그러나 1908년 私立學校令과 1909년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이 반포되자 재

정난에 봉착하여, 결국 민씨 일족에서 재정을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영어와 산술(수학)교육의 강조였다. 지지(지리)·역사·이학 이외에도 고학년에서는 법제·경제·국가학 등을 교수하였다. 그리고 토론과 체조 등도 초기부터 중시되었으나, 1907년 이후에는 폐지되었던 것 같다. 교사로는 구미와 일본의 유학생을 포함하여 당시 실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또 전현직 고관과 재산가, 명망가들도 찬성원 등으로 관여한 바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으나, 계몽과 국권회복의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에 반대하여 순국한 민영환이 설립자 겸 교장이었던 사실과, 학교 행사가 민영환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홍화학교는 한국근대교육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는 아니었지만, 1898년에 설립되어 1911년까지 10여년 운영되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또 초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晝學과 夜學이 병설되어 있었다. 교수과목도 영어와 산술(수학)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서구 근대학문뿐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 으로 보였다. 이 점은 1900년대 중반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參考文獻

- 『京城府內 私立學校現狀一斑』.
- 『興化學校文簿與報告書』, 미간행.
- 『舊韓國官報』 1901년 5월 9일자 '學事'.
-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14일자 잡보 「興校益興」.
-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擴張」.
-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17일자 잡보 「興校試驗」.
-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5일자 잡보.
-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18일자 잡보 「平北民願」.
-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2일자 잡보 「興校帽製」.
-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13일자 잡보 「金氏有志」.
- 『大韓帝國官員履歷書』, 國史編纂委員會, 1972.
- 『萬歲報』 1906년 8월 14일자 잡보 「數學將刊」.
- 『萬歲報』 1906년 9월 12일자 잡보 「興校開學」.
- 『帝國新聞』 1898년 10월 28일자.
- 『朝鮮日報』 1939년 6월 23일자.
- 『皇城新聞』 1898년 10월 29일자 잡보 「義捐設校」.
- 『皇城新聞』 1898년 12월 15일자 잡보 「試才施賞」.
- 『皇城新聞』 1898년 12월 27일자 잡보 「學業自旺」.
- 『皇城新聞』 1899년 1월 7일자 잡보 「學校寄書」.
- 『皇城新聞』 1899년 4월 3일자 잡보 「校費請助」.

- 『皇城新聞』 1899년 5월 9일자 잡보 「贊成學金」.
- 『皇城新聞』 1899년 8월 25·26일자 광고.
- 『皇城新聞』 1899년 8월 28일자 광고.
- 『皇城新聞』 1899년 8월 28일자 광고.
- 『皇城新聞』 1899년 10월 29일자 잡보 「義捐設校」.
- 『皇城新聞』 1900년 4월 2일자 잡보.
- 『皇城新聞』 1900년 4월 3일자 광고.
- 『皇城新聞』 1900년 4월 19일자 잡보 「興校增科」.
- 『皇城新聞』 1900년 5월 31일자 잡보 「興校月試」.
- 『皇城新聞』 1900년 7월 13일자 잡보 「興校放學」.
- 『皇城新聞』 1901년 3월 9일자 및 1902년 3월 13일자 광고.
- 『皇城新聞』 1906년 2월 16일자 잡보 「校長有人」.
- 『皇城新聞』 1906년 3월 3일자 잡보 「有志興學」.
- 『皇城新聞』 1906년 3월 17일자 잡보 「教主捐助一束」.
- 『皇城新聞』 1906년 3월 19일자 잡보 「興學訓令」.
-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자 잡보 「興校大興」.
- 『皇城新聞』 1906년 4월 7일자 잡보 「興校趣旨」.
- 『皇城新聞』 1906년 4월 23일자 잡보.
- 『皇城新聞』 1906년 5월 21일자 잡보 「興校體操」.
- 『皇城新聞』 1906년 7월 5일자 잡보 「興校放學」.
- 『皇城新聞』 1906년 8월 16일자 논설 「賀興化學校擴張」.
- 『皇城新聞』 1906년 11월 6일자 잡보 「金氏熱心」.
- 『皇城新聞』 1906년 12월 1일자 잡보 「興校追悼概況」.

- 『皇城新聞』 1906년 12월 2일자 잡보 「興校追悼後聞」.
- 『皇城新聞』 1907년 4월 12일자 잡보 「興校近況」.
- 『皇城新聞』 1907년 7월 13일자 잡보 「興校進就」.
- 『皇城新聞』 1907년 9월 20일자 잡보 「校長薦定」.
- 『皇城新聞』 1907년 11월 7일자
- 『皇城新聞』 1910년 2월 15일자 잡보 「興監辨論」.
- 『皇城新聞』 1910년 3월 12일자 잡보 「兩氏擔費」.
- 姜秉植,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研究』, 民族文化社, 1994.
- 金祥起, 『韓末 私立學校의 教育理念과 新教育救國運動』, 『清溪史學』 1.
- 김세한, 『한서 남궁억선생의 생애』.
- 渡部學·阿部洋 편,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67, 龍溪書舍, 1991.
- 리진호, 『私立興化學校와 量地教育』, 『鄉土서울』 55, 1995.
-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편, 『夢陽呂運亨全集』 1, 한울, 1991.
- 方善柱, 『金憲植과 3·1운동』,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  
연구소, 1989.
- 方善柱, 『徐光範과 李範晉』,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探求堂, 1987.
- 宋志香 편, 『安東鄉土誌』 下, 大星文化社, 1983.
- 呂運亨, 『自敘傳』, 『三千里』 1932년 9월호.
- 오성근, 『日記抄』, 국가보훈처 자료관리과 소장.
- 柳漢喆, 『韓末 私立學校令 以後 日帝의 私學 彈壓과 그 特徵』,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 1988.
- 李萬珪, 『朝鮮教育史』 下, 乙酉文化社, 1949
- 李庭植, 『金奎植의 生涯』, 新丘文化社, 1974.

李鎭昊, 『增補 大韓帝國 地籍 및 測量史』, 土地, 1991.

조선총독부 內務部 學務局, 『朝鮮人教育私立學校統計要覽』, (1913).

崔起榮, 『韓末 서울 소재 私立學校의 教育규모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報』. 70,  
1993.

崔起榮,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 一潮閣, 1991.

## Abstract

A study on HONGHWA school at the Close of  
Chosun Dynasty

LEE JEONG HOON

MAJOR IN KOREAN HISTORY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Honghwa School was a private school with the longest history which was founded by Koreans. Honghwa School was founded under initiative of MIN, YOUNG-HWAN on Nov. 5, 1898. Recognizing importance of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and for progress of Chosun Dynasty he founded a private school with a level of a middle school education. At first 3 years' ordinary course and 2 years' advanced course were established for daytime and night-time and curricula included geography, history, rhetorics, gymnastics etc. as well as English and mathematics. What is noteworthy in this connection is the fact that Honghwa School was founded in Taegu and Andong of the Kyungbuk region famous for its conservatism. Honghwa School opened the short course for learning survey thus it had totally 3 courses including ordinary course, special course and survey course and from 1905 English and Japanese course were added. Since 1906 advanced ordinary course education was implemented.

For foundation of the school KIM, SHIN YOUNG, former magistrate of kun-office mad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but since then MIN, YOUNG HWAN had been in complete charge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school. Until the time of November 1905 and before martyrdom difficulty for the school. Since then it suffered from financial trouble therefore Emperor and others from different walks of society joined for providing support. From September 1906 tuition fee was collected and there were donations from government office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o. However in 1908 with the proclamation of 'Regulation for private schools and in 1909 proclamation of rule for collecting donations' the school faced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eventually the clan of MINs came to shoulder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school.

In connection with curricula noteworthy fact was its emphasis upon education of English and Mathematics. Apart from subjects of geography, history and science in the advanced grades law, economy and science of statecraft etc. were taught. From the beginning the subjects of rhetoric and sports were emphasized but it seemed these subjects taught no more after 1907. Teachers were recruited from students who returned to Korea after studying in America, Europe and Japan and from other learned people and socially renowned people also involved as supporters for the school. Although educational data of the school can not be discovered it seemed students were taught under the principle of enlightenment and recovery of sovereignty of the nation. In view of the fact its founder was MIN, YOUNG HWAN who killed himself in protest against signing Protective Treaty in 1905 under duress of Japanese and school events were taken place in the region related to MIN, YOUNG HWAN such direction in education is not hard to imagine.

Honghwa School existed until October 1910 but by May 1912 it was no more in existence. 'statistical Prospectus of Korean Private School' which was compiled by investigation by Bureau of Educational Affairs, Minister of Interior,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showed classification of private schools by different provinces but in this Prospectus the name of Honghwa School was not included. These data showed the status as of May 1912. For this reason it is very clear that Honghwa School was closed down in 1911 as reported.

Although Honghwa School was not the first private school in the history of modern education in Korea but it was only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in 1808 and closed down in 1911 thus operated for 10 years. It aimed to teach students course of middle school not primary school and had daytime and night-time courses. The subjects of English and Mathematics were emphasized and also showed continuous interest not only in modern Western learning but also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On the basis from such fact Honghwa School is believed as laying down a typical example as a predecessor for other Korean private schools thereafter which appeared in rapid succession as a part of enlightenment movement for recovery of national sovereignty.